

천사마을 노송동서 시민 목소리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진행… 5대 분야 18대 전략 설명·질의응답 시간 가져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혁을 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25일 노송동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노송동 통장과 주민자치협의회, 기타 자생단체 임원진들과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의 중심부에 자리한 노송동은 25년째 해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남몰래 기부하면서 ‘천사마을’로 불리고 있다.

이날 우 시장은 2025년 시정 목표인 ‘확실한 변화! 함께 여는 전주의 큰 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민생) △미래 광역도시 대전환(도시) △강한 경제 일자리 도시(경제) △글로벌 으뜸 문화산업(문화) △일상 속 신바람 복지(복지) 등 5대 분야 18대 전략을 설명했다.

이어진 노송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우성해오름아파트 후문 옆 도



우범기 전주시장은 25일 노송동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노송동 통장과 주민자치협의회, 기타 자생단체 임원진들과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로 열선 설치 건의 △노송동 행정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한 천사마을 주민문화공간 조성 추진 건의 △천사마을 상징 조형물 제작 건의 △노송동 천사(愛)반찬나눔을 위한 공유주방 설치 건의 등 주민들의 주요 현안 관심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우 시장은 이날 제시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약속했다.

해 전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전주의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 시장은 오는 3월 4일에는 완산구 평화2동을 찾아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볼철 골프 성수기를 맞아 전주월드컵골프장의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전주월드컵골프장, 운영시간 연장

3~11월 오전 4시 41분~오후 7시 30분으로 티오프 시간 조정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볼철 골프 성수기를 맞아 전주월드컵골프장의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볼철을 맞아 골프 수요가 느는 데 따른 조치다.

추위가 풀리고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시기를 흔히 ‘볼철의 계절’이라고 부른다.

월드컵골프장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첫 티오프(tee off) 시간을 오전 4시 41분, 마지막 티오프 시간을 오후 7시 30분으로 조정한다.

티오프 시간이 오전 5시 58분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만 동절기(12월~이듬해 2월)보다 운영시간이 2시간 13분 늘어난다.

팁 수도 97타에서 114타으로 17타이 늘어 보다 많은 시민이 라운드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월드컵골프장은 도심에 위치한 9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이용료도 저렴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용료는 평일 4만1000원, 휴일 5만2000원이며, 전주시민은 할인 적용을 받아 평일 3만7000원, 휴일 4만7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에게도 전주시민과 같은 할인을 이 적용된다.

이연상 이사장은 “볼철의 계절을 맞아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골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골프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서전주새마을금고는 25일에 개최된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랑의 줌도리 성금 5백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신동주민센터에 서신동 동네복지기금으로 기탁했다.

서전주새마을금고, 사랑의 줌도리 성금 500만원 기탁

서전주새마을금고(이사장 박삼순)는 25일에 개최된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랑의 줌도리 성금 5백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신동주민센터(동장 김은성)에 서신동 동네복지기금으로 기탁했다.

박삼순 이사장은 “사랑의 줌도리 운동은 옛 전통을 되살려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새마을금고의 대표적 인 사회공헌 활동이다”며, “나눔을 통해 미래를 생각하는 마을으로 조합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금한 사랑의 줌도리 기부금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귀중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성 서신동장은 “매년 서전주새마을금고의 후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서전주새마을금고 박삼순 이사장님과 조합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중한 성금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전주새마을금고는 2017년부터 9년간 매년 사랑의 줌도리 기부금 5백만원 총 4천5백만원을 동네복지기금으로 기부해오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는 학생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지방의회 체험교실’을 3월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주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고교생까지 확대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25일 학생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지방의회 체험교실’을 3월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지방의회 체험교실은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을 비롯한 각 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다. 3분자유발언과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 등을 통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현장 교육도 이뤄진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 체험교실은 올해부터 고

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의회는 지역 현안에 관한 토론과 정책 제안 등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한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관우 의장은 “더 많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지방의회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회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지역건축안전관리 체계 구축

전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계획 수립·합동점검도 추진

전주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 전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이 계획에 따라 올 한해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점검체계를 유지하면서, 건축공사의 안전 품질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올해 추진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주요 업무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점검 △여름철, 겨울철 등 자연재난 취약건축물 안전 점검 및 대피 체계 구축 △건축 및 해재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 등이다.

특히 센터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해빙기 대비 건축안전자문단 합동 점검을 통해 결빙되었던 지반이 녹으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내 지반 상태와 흙막이·옹벽 등 위험시설물 관리 상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내실 있는 업무 추진으로 노후화된 건축물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